

#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해 삶의 질 높인다

광주시 주거복지 실현 방안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  
벽 허물어 2세대를 1세대로  
전국 첫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

광주지역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시행된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비좁은 세대의 경우 두 집 사이 벽을 허물어 한집으로 만들고 넓게 쓰게 하는 등 시설을 개선시켜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이 비좁고 노후화돼 공실이 늘어나고,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 5370호다. 광주도시공사가 47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670호를 관리한다. 이 가운데 1만3920호(90.6%)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주거전용면적 24~26㎡(7평가량)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이 상당수다.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를 기피하면서 텅텅아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0호에 불과하던 공실은 지난해 말 179호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는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실 현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세대벽을 허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공용부설 시설도 장애인 이용하기 편리도록 개선하고, 노후 시설도 개선한다. 민원이 많은 하남시영아파트 배란다 문턱 제거 등 시설 개선은 시비를 우선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분야의 경우 기관간 역할 분

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 '주거복지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임차인대표회가 적절하게 가동하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공실 해소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공사와 LH공사, 지역사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입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공자·장애인·기초수급자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  
증명서 등 번거로움 없애

광주시는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나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 교부금 1억9000만원을 확보하며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수영장·빙상장과 빙고·효령노인건강타운 등 5개 시설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용 광주시 행정정보담당관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목사 출정이요” ‘제7회 광주 사직 단오제가 7일 광주 남구 향교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향교와 사직단에 이르는 1.3 km 구간에서 사직대제를 내리기 위해 관청을 나서는 광주목사 출정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 “광주만의 강점 살리고 젊은층 끌어들이 관광전략 필요”

광주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의 울들어 처음 개최된 '광주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주만의 강점을 살리고, 젊은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관광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남구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 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주재로 '2019년 제1차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7기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설명하고, 관광진흥종합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다. 전문가들은 주요 관광정책 운영방향 등에 대해 이 시장에게 조언도 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을 비롯

해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박종찬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이용현(세종대 관광컨벤션학부 대표이사, 강신경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교수 등 17명이 참석했다. 강신경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술관광을 주제로 한 '예술여행도시, 광주' 사업의 기본구상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강 교수는 '예술여행도시, 광주' 사업이 광주가 지닌 풍부한 문화예술 코드를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융복합해 대안적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최근 전문가와 떠나는 건축여행, 미술관 아트투어, 공연예술, 문화예술 축제 관련 여행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도시관광의 강

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젊은층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 활성화를 제안하고, 다양한 관광 관련 인력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광분야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를 맞아 10개 협력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50여개 수영대회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어 수영대회 선수단 및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영대회 기간(7월12일~28일) 관광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관광홍보 리플렛 등 홍보물 12만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름철 수난 인명구조 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장성호에서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및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구조대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방헬기와 보트, 드론 등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사업장 등 업소 4곳 적발

광주시, 입건·영업정지 등 조치  
광주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사업장 등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으로 이뤄졌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품점업소, 식품제조업소,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등 30여 곳을 점검했다. 단속 및 수사의 주요 내용은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및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점업소(도시락 유통체인점 등) 2개소는 중국산 고춧가

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원료수불부(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표)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과자류제조업 1개소는 관할행정청에 영업신고하지 않은 채 무신고로 마카롱 등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식품 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4개소 대표자를 입건 조치하고, 업소 대표자 등을 불러 위반 과징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담당부서,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수영대회가 식품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로 치러지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북구,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추진

14개 기관·단체와 협업 돌입  
광주시 북구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시설과 손을 잡는다. 재정여건과 부지확보 등의 한계로 인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조치로, 학교, 아파트, 교회, 금융기관 등 14개 기관·단체와 협업에 돌입한 것이다. 북구는 "11일 북구청사에서 지역 내 유류 주차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공공-민간시설과 개방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나눔주차장사업은 지역내 공공-민간 시설이 소유한 주차장을 유류 주차시간에 최소 2년, 하루 7시간 이상, 10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

대 2000만원 내에서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건국초등학교를 비롯해 아파트 5곳(일곡정 1차·4차, 매곡 호반 1차·2차, 매곡 대화), 교회 7곳(운암·반석장로·주원·동양·성암·광림·일곡중앙교회), 금융기관 1곳(광주농협 매곡동지점) 등 총 14곳이며 최소 290면 이상이 개방된다. 특히, 참여 기관 중 건국초등학교는 야간시간 북구내 학교 주차장 개방의 첫 사례로서 학교보안 및 안전 확보 차원에서 거주자 지정주차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